

# ‘불기’ 닦는 일은 율력이자 수행...

〈佛器〉

사찰 찾아 행보시 실천하는 강원선우회



강원선우회 회원들이 불기를 닦는 중간에 환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 강원선우회는 2007년 7월 출범한 불자 봉사단체로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중단을 넘어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불기닦기를 비롯해 법당청소를 진행하며, 매월 1회 춘천교도소 수형자 법보시, 불우가정 돕기 및 사랑의쌀나누기, 연탄나누기, 집수리 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잘 닦인 솥대에서는 광채가 흘러나온다. 정성스럽게 닦는 불기를 영단에 세운다. 향로에 향을 사르며 다기에 청수와 마지를 올리면 어느새 마음은 정갈해진다.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 내듯 불기(佛器)를 닦는 일은 율력이자 수행이 된다.

지난 2월 1일 춘천 구국사 대웅전 한 칸에는 강원선우회(회장 석범준) 회원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불단 위의 불기를 조심스럽게 내린 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불단에서 하나씩 불기가 내려올 때마다 이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약을 바르고 열심히 닦는다. 새까맣게 때가 타있던 놋으로 된 그릇들은 이내 번쩍번쩍 광을 내는 본 모습을 찾는다.

### 강원지역 80여 사찰 찾아 행보시

강원선우회는 어느 사찰에 소속된 신도회가 아닌 자발적인 봉사 모임이다. 이들은 사찰을 찾아 행하는 봉사활동을 ‘행보시’라고 칭한다. 물질적인 재보시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사찰을 찾아 율력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전역이 이들의 활동 무대다. 2007년 설립 이후 8년 동안 이들의 도움을 받은 사찰은 100여 곳에 달한다.

강원선우회는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석범준 회장이 불교와의 인연을 쌓으면서부터 시작했다. 불자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별다른 수행활동이 없었던 석범준 회장은 판촉물 도매업 등 사업이 부침을 겪으며 잠시 춘천의 한 작은 사찰에 머물게 된다. 이후 석회장은 불심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켰다. 오래지 않아 그는 어려운 시절 몸을 의탁한 사찰의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다. 사찰을 찾은 석회장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작은 사찰이었기에 노스님 한분만 있었기에 사찰의 모든 불기들이 녹슬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검게 때가 탄 불상과 불기들을 보며 석회장은 발심했다.

“스님의 다비식 후 도량관리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당을 청소하고, 닦고 광내는 것이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사찰의 경우 신도들이 많이 정기적으로 불기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사찰은 다르죠. 보통 노스님 홀로 계신 곳이 많습니다. 신도들도 적을뿐더러 처사들보다 나이 많은 보살님을 위주라 불상과 불기를 닦는 게 사실 힘들죠. 힘들 때 저를 보듬어 준 부처님께 더러운 불기로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2007년 7월 출범, 80여 회원 활동  
불기닦기·율력·소외계층 돕기 펼쳐  
매주 2회, 춘천 열린법당서 시행활동  
2014년 강원도 봉사대상 수상 영예

가 없었습니다.”

석회장은 바로 주변 사람들과 선우회를 조직하고 불기닦기 봉사를 나섰다. 처음 불기닦기 봉사에 동참한 이들은 12명, 현재는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됐다.

“이제는 회원들이 늘어나 조를 짜서 봉사를 나갑니다. 각자의 생업이 있기에 시간을 조율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루에 1~2개 사찰에서 율력을 진행합니다. 80여 회원 대부분이 불자이긴 하지만, 봉사하는 취지에 공감한 이웃종교인도 있어요.”

### 가족이 함께 해 의미 더해

선우회 회원들에게서 뿔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일까. 추운 겨울임에도 행보시 현장인 대웅전 안은 이내 따뜻해 졌다. 이들의 얼굴에도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모두가 열심히 가운데 가장 꼼꼼히 불기를 닦는 이가 있었다. 바로 부회장이 김정숙 보살(법명 여여성)이었다. 김정숙 보살은 선우회 창립 초기부터 함께 행보시를 해왔다.

김정숙 보살은 “불기를 닦아내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때가 말끔히 벗겨진 불기를 볼 때면 마치 업장이 녹은 듯 환희심이 절로 난다”고 말했다.

김정숙 보살은 건축 창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주말이면 오히려 더욱 바쁘지만 강원선우회 일이라면 열일을 마다 않고 참여하고 있다.

“아무래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서다보니 가족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니 가족들이 변했습니다. 나중에는 가서 열심히 하라며 태워다 줄 정도예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마음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김정숙 보살은 “겨울 비수기 때는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봉사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사음악회도 다니고 스님들의 좋은 법문도 들을 수 있어 신심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뷰 하는 동안에도 손때가 묻은 곳에 먼저 약품을 바르고 넘기고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다른 한쪽에서는 신문지에 광약을 묻혀 옆 사람에게 넘기면 다른 쪽에서는 천으로 닦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회색으로 검게 빛바랜 불기들은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다. 마무리의 깨끗한 천으로 닦는 순간 어느새 본래의 맑고 영동한 색을 찾으며 광채를 발한다.

“잘 닦인 불기에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면 마치 내 마음을 닦은 것 같습니다. 힘은 들어도 깨끗하게 닦은 불기가 불단 위에 놓일 때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석범준 회장은 불기닦기의 노하우도 털어냈다. 솥대의 경우 솥을 먼저 제거하고 솔로 털어내는 것이 포인트라고 귀띔했다. 크기가 작고 무늬가 있는 불기의 경우 부드러운 칫솔 등을 활용해 약을 세밀하게 발라줘야 구석구석의 때가 벗길 수 있는 것이다. 광 또한 한쪽방향으로 닦아내야 보다 잘 난다고 말한다. 석회장은 “지역 불교용품점에서 선우회로 인해

天氣福

## 화제의 신간

#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사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임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우체국 310417-02-169082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943-6882/010-2002-6332

# “내 마음도 절로 닦여요”



2월 1일 구국사 불기뉘기 행사에 참여한 강원선우회 회원들



매년 진행되는 '사랑의 연탄나르기' 행사 모습



2014년 11월 진행한 김장담그기 행사. 김치는 독거어르신 등 춘천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지난해 여름 강원지역 수해 이후 독거어르신의 집을 보수하는 선우회 회원들의 모습



춘천요양원 빨래봉사, 춘천교도소 법보시 후 진행돼 조끼에 교도소 마크가 선명하다.

광약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려요"라며 농담 섞인 말도 했다.

불기 뉘기가 진행되는 구국사 대웅전에는 명부전, 산신각 등 4개 전각이 있었다. 각 전각에서 불기들이 속속 들어 대웅전으로 들어오고 강원선우회 회원들은 누가 무엇을 해라 할 것 없이 알아서 각자의 맡은 일을 진행했다. 바깥으로 나가자 한 처사는 산신각을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처사는 쌀쌀한 날씨에도 조용히 밖에서 향로의 재를 채어 거르고 있었다. 불순물을 없애 향로를 보다 오래 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수행한다 생각하면 힘든 것 없어요”

이날 만난 선우회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힘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동안의 봉사활동에 대해 “비우면 채우고, 부처님 원력을 따를 뿐”이라며 “봉사하는 것이 복을 짓는 일이지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는 총무 박현숙 보살(법명 무량수)은 선우회 활동에 동참한 3년 동안 가정의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했다.

박현숙 보살은 “남편과 같이 다니며 봉사를 하다 보니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아이들과도 부부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며 “불기를 닦으며 때가 벗겨지고 윤기가 흐를 때의 기분은 무엇이라 표현 할 수 없다. 자기 자리에 놓으면 더욱 빛나는 것이 부처님의 광명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범준 회장은 오히려 “춘천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사찰이 불기뉘기 봉사를 신청해주었으면 한다. 아주 먼 곳은 힘들겠지만, 춘천의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2~3시간

거리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는 신도들이 고령화되다보니 사찰이 커도 일할 사람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활동이 많은 불자들에게 알려져 각 지역에서도 사찰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이 일어났으면 해요.”

하지만 선우회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약과 같은 불교용품을 취급하는 곳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석범준 회장은 “유해물질이 없는 약품을 쓰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런 물품을 구하기가 힘들다”며 “소액이기에 마진이 적다보니 점차 취급하는 용품종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우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회원 분들이 나이가 들어 점차 행사에 예로점이 있다. 젊은 불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우회는 신형활동도 함께 해가며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월요일 오후 8시 춘천 동부시장에 위치한 열린법당에서는 강원선우회의 열린법회 가 개최된다. 예불과 함께 <천수경>을 위주로 다양한 경전을 독경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서로 교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불자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 교도소·군법당 등에도 자비심 전해

선우회는 사찰 행사뿐 아니라 소외계층 보듬기에도 나서고 있다. 매월 1회는 춘천교도소에 미결수를 대상으로 한 법보시를 진행하며,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는 춘천국군법원을 비롯한 지역 군부대를 찾아 떡볶이 보시를 하고 있다.

한 보살은 “군부대에 갈 때마다 군장병들을 보며 젊어지는 것 같다”며 “재가불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

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장철이면 사찰을 찾아 봉사하고 춘천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연탄나르기 운동 등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13~14일에는 회원들이 심시일반 돈을 모아 떡 400kg을 만들어 독거어르신 가정 200곳에 이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춘천여고에서 단체 창설 이후 첫 자선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 치료비가 없어 고통 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도 하고, 여름에는 장마피해로 무너진 독거어르신 집을 회원들이 수리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선우회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수여하는 강원도 봉사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앞서 춘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선정한 으뜸봉사단체로도 선정됐다.

석범준 회장은 “도내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특히 불치병이나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이 많아 다양한 곳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자 종교단체로서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체로 자리한 데는 여러 불자들의 심시일반의 도움과 부처님의 가피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올미년 새해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불기뉘기를 마친 선우회 회원들의 얼굴과 옷 군데군데에는 얼룩덜룩 광약이 묻어있었다. 하지만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부처님의 광명이 비취져 환하게 빛났다. 마치 이들이 닦은 불기처럼.

춘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전법일기

### 음성포교, 쉬운 길은 없다

음반을 처음 기획했을 때 주변에서는 만류가 심했다. 음반은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하고, 무슨일이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도 음반을 만드는 것에는 회의적이었다. 심지어 종이 수행은 안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과 호흡하는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음악법회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차츰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졌다.

내 사진과 법명이 적혀있는 음반을 들고 먼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스님들을 만났다. 백양사 주지스님과 소임자 스님들께 선을 보이고 내 음반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보냈다. 처음에는 미지근했던 반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

곳에서 공연을 보러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기실에서 공연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조금 긴장이 되었다. 하지만 무대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에 긴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100개의 의자는 남김없이 모두 앉아 있었고 뒤에는 미처 자리에 앉지 못해 서 계신분도 있었다. 심지어 공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되돌아간 분도 있었다. 지난번 카페공연과는 달리 악기도 다양하고 조명과 음향시설도 완벽해서 정말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었다. 노래 사이사이에 이야기와 선물증정, 그리고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과 내 음반 수록곡 '나는'의 노랫말을 써준 류근시인과 짝짝 전화연결 이벤



그림·박구원

츠 좋은 반응을 보였다. 들을수록 가사도 외당고 멜로디도 편안해서 듣기 좋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광주 불교방송국을 비롯해 서울불교방송국과 부산, 대구불교방송국에서도 내 노래를 들려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방송국들도 음악감독의 소개로 실력 있는 연주자들을 섭외했다. 연주자들의 수고비는 후원자들이 심시일반으로 모아준 기금으로 마련했다. 공연날짜를 10월의 마지막 날로 정하고 한 달 전부터 맹연습에 들어갔다. 일렉트릭기타와 통기타, 베이스, 드럼, 건반 등 다양한 악기를 갖추고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일은 단순히 반주를 들으며 노래를 녹음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관객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정원이 70석인 공연장에 30개의 의자를 추가로 더 준비했다. 곳

트 관객들은 모두가 환호했다. 특히 누나 알만한 신나는 팝송을 울동까지 곁들여 부를 때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몸을 흔들었다.

공연을 마치고 출구앞에서 내 음반에 사인을 해줬다. 내 음반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분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이미 음반을 구입한 분들도 주변에 선물을 하겠다고 끝까지 줄을 서서 사인을 받아간 분들도 많았다. 사인을 받고 인사를 하면서 한결같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고 고마워했다. 그 인사를 받는 내가 더 행복하고 고마웠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나는 다시 약속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포교의 영역에 쉬운 길은 없다. 이미 누군가 개척해 놓은 길도 있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길도 있다. 어차피 어느 길이든 쉬운 길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길을 가고 싶었다. 그렇게 다시 하나의 목표를 완성하고 다음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는 라디오 진행이었다.



수안 스님 (前 백양사 포교국장)

## 보련 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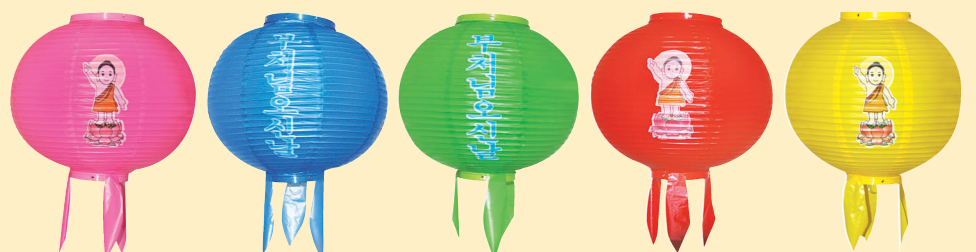
### | 인등시공 |



### | 초파일 용품 |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 만 월 등



### 공 단 등

### 황 금 등



###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